



동성애자들을 도우시다

성인경

최근에 텔런트 홍 모씨가 커밍 아웃을 함으로 갑자기 동성애 신드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성애를 “쉬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퀴어영화제(Queer Film & Video Festival)’라는 것이 열렸을 때에, 앞으로의 파장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될 줄은 몰랐습니다. (“queer”라는 말은 ‘성적 소수집단’을 의미하는 말인데, 퀴어영화제는 동성애를 다루고 있는 50여편의 영화 비디오를 상영하는 한국최초의 동성애 영화축제였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한 의원의 말처럼,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고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늘고 있다

처음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동성애 서클이 한 둘 생겨나더니, 이제는 동성애 서클이 없는 대학이 없을 정도이며 동성애 잡지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캠퍼스끼리 연합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서 ‘성축제’라는 것도 열고,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리고 일부 텔레비전 드라마나 PD수첩 등에서도 이를 공적으로 다루는 등 미처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논란을 그칠 겨를도 없이 새로운 형태의 성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첫째, 동성애를 인권문제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문제가 인권문제로 부상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정치적 파위까지도 형성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목회자들까지도 그들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치인들 중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같이 동성애를 인권적 차원에서 지지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짐이 일고 있는데, 일부 신문의 논조나 영화 평론만 보더라도 동성애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내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는 퀴어영화제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국민정부가 허락한 것입니다. 민주와 인권이란 미명 하에 죄악이 미화되거나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인권이 있습니다.

둘째, '동성애자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낯익은 기독교 대학생 청년들 사이의 불장난 정도로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직분자, 교역자, 선교단체 간사들까지 상당히 오래 믿은 사람들 사이에도 같은 행위가 퍼지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 중에는 죄책감은커녕 신학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냉대를 피해 그들끼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머지 않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동성애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동성애자 교회가 준비한 미국으로 이사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자 교회가 하루 빨리 세워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현재 있는 동성애들의 기도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이 공적인 교회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교회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며 그것은 엄청난 교회론의 변질입니다. 그것은 신사참배 못지 않게 한국교회 역사에 크다란 오점을 남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문제의 심각성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원색적인 비방이나 소극적인 기도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그들을 정신병자나 에이즈보균자 혹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괴물을 대하듯이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것은 고사하고 익명성과 비밀을 요하는 상담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심정적 동성애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라브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홍길동: "성목사의 동성애에 대한 글은 구약의 모세 5경과 신약의 바울 서신이 성경의 권위적 기준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별로 신빙성이 없는 모세와 신약의 바울의 생각이 고작이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나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한 형제임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율법도 좋고 바울도 좋지만 예수님이 더 좋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이 사람은 "신빙성이 없는 모세", "바울의 생각이 고작", "우리의 한 형제"라고 하는데 동성애는 고사하고 성경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칠칠이: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한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현재에 도식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묻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역행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데, 독신자, 이혼자, 신부와 수녀 등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그리고 동성애는 동성에게 느끼는 감정까지 말하는 것이고, 동성연애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애무, 키스, 성관계)까지를 말한다. 나는 동성애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성애에 대한 감정과는 많이 다르지만 동성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다분히 낭만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잘못된 세계관 때문이다

동성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성애란 선천적인 유전적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성(異性)보다는 동성(同性)에 끌리는 유전학적 요소를 체내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은 가끔 일란성 쌍둥이, 호르몬 이상자, 생태적 양성자 등이 이런 원인에 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성장한 환경으로 인해 이성애(異性愛)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동성을 좋아한다는 주장입니다. 감정적 혹은 환경적 배경으로 인해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호감과 안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나 이성교제에서 심한 상처를 입거나 유아기적 심리 혹은 우정과 사랑의 혼돈으로 인한 미성숙 인격자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성애란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갖는 성적 권력 행사의 결과이자 수단이며 고유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성행위의 도덕적 주체로서 인식한다면 동성애를 개인적인 성적 활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며, 성행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번째 견해는 모든 이념과 윤리의 해체를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Histoire de la sexualite, 성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푸코는 쾌락주의적이고 부도덕한 현대문화의 사상적인 기초를 놓은 장본인입니다.(더 자세한 분석은 나의 '푸코의 성담론 비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푸코는 그 책에서 고대 헬라와 로마시대의 유명 철학자들의 성생활을 표본으로, “성행위란 생존의 미학과 권력의 작용으로 인식된 자유의 심사숙고된 기술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쾌락의 활용 267, 268), “기존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은 철저하게 권력의 메카니즘 속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동성애는 심리학이나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개인의 성격적인 것인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쾌락의 활용 205-207)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푸코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강간까지도 가능하며 대가만 지불된다면 매춘도 정당하다고 말함으로써 광기 어린 뒤틀린 인식론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연애술'에서 메넬라스의 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남자들의 방탕한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들과의 그것은 여자들과의 입맞춤처럼 세련되거나 부드럽지도 방탕하지도 않은, 기술이 아니라 자연에서 우러나는 입맞춤, 결빙되고 입술이 된 신의 술, 그것이 체육관에서 나눈 단순한 입맞춤이다.”(자기에의 배려 252) 푸코는 동성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 역사적 기초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쾌락의 희생자들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 푸코 자신이 자기가 만든 철학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동성애자들도 의학적 혹은 환경적 원인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향도 받고 타당성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유전적인 치유나 환경적인 치유의 가능성과 2)독신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선택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려고만 합니다. 세번째 이념적 원인의 경우에는 세계관을 바꾸기 전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세번째 원인에 의한 동성애자들의 공통점은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감추고 동

성애의 정당성을 강변한다는데 있습니다.

동성애는 왜 죄인가?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가혹하리만큼 단호합니다. 아주 사악한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당시 중동지방의 성문화를 의식한 듯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18:22)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사악하고 가증한 일로 취급했는데 동성애를 같은 류의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동성애자를 말함),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아닌 것을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유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동성애자들은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력 결핍을 조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즉 푸코(M.Foucault)와 같은 사람은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애를 낳지 않으면 노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성애를 정당화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반쪽 진실입니다. 비록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이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해 조직적으로 노동자들의 쾌락을 억압한 적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의 말대로 20세기 서양 역사를 주물렀던 파시즘, 신보수주의, 민족주의 등이 기독교의 침묵 아래 각종 성적 장치들을 동원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동성애를 탄압했다는 것을 일부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노동력 재생산을 목적으로 일부일처 가족제도와 부부간의 이성애적 섹스, 국가적인 인구 정책 등을 통하여 교묘하게 동성애를 탄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적 이유, 특히 노동력의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금욕주의적인 영성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섹스와 영성이 대립되거나 기독교가 금욕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푸코는 우리 시대의 성윤리가 규정화되고 엄격하게 된 근본 원인을 기독교적인 세뇌와 각인에 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기독교 전 시대라 하는 고대 사회의 성윤리보다 더 억압적이며 개방적이지 못하다고 호도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푸코가 1977년 1월에 르몽지와 의 인터뷰에서 그 오해는 극에 달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부담스러운 유산은 섹스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반쪽 진실입니다. 스토틀(John R.W.Stott)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게 주

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중의 하나가 섹스라고 믿으며, 그것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동시에 섬김과 교제의 극치라고 믿습니다.(창세기2:18-25; 고린도전서7:1-7; 디모데후서3:1-5) 한나는 영성이 있는 경건한 여자였지만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한 여자였습니다.(사무엘상1:19,20)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유는 영성과 섹스가 대립되거나 기독교가 금욕주의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셋째, 창조질서를 깨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죄라고 합니다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성과 성적 정체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각각 육체의 차이와 성적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다운 성적 욕망과 매력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운 성적 정열과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면에서 동등합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남녀의 이성애적 사랑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자기 과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이니 운운하는 동성애는 바로 그와 같은 창조 질서의 남녀의 성적 차이와 매력, 그리고 그 고상하고 거룩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일컬어 “역리(逆理)”, 즉 남녀의 성을 순리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로마서 1:26,27) 바울의 이 말은 섹스란 본래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 성적 차이와 매력을 바탕으로 즐기고 사용하도록 만들어 졌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꾸로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그밖에도 동성애는 1)남녀의 인간성과 정체성만 파괴하지 않고 인간 공동체, 즉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1부1처 결혼제도와 자녀 출산, 가족 제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2)그리고 독신자들과 성적 장애자들의 아름다운 가치관, 즉 인간에게 섹스는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파괴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고차원적인 성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악한 성적인 죄를 밥먹듯이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달리 동성애만을 죄라고 하는 것도 곤란하며 그들을 정죄하거나 정죄할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을 따라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독선의 칼"로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할 때 비로소 사랑과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들에게도 사랑과 진리가 필요하다

나는 성적 소수집단으로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아픔을 이해합니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이해합니다. 유전적 환경적 요인도 납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도 인정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왔을 때 제대로 돕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성애는 회개해야 할 죄악입니다. 이념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성적 습관을 고쳐야 할 병입니다. 정상적인 성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도와야 합니다.

첫째,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커밍 아웃’을 한 배짱 좋은 소수의 드러난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거나 소수의 동류들과 어울려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깊은 소외감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동성애자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받아주는 교회나 전문 기관도 없는 형편이고 보니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꺼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과 죄는 깊어만 갑니다.

최근에 라브리가 상담한 동성애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자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 여자동성연애자(lesbian)는 자기가 끔찍하게 아끼던 후배와 사랑에 빠진 경우인데, 처음에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들이 자라서 이제는 서로의 육체를 요구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 동성애자들인 경우에 기독교인으로서 심한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자들에게도 먼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비록 동성애를 즐기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초청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해야 하지만, 잠을 재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이성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기독교 공동체가 과시해야 합니다. 오랜 동성애 끝에 만난 한 남자에게서 사랑을 느낀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한 여자와 지난 8년간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에, 지금 결혼한 그 남자를 만나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이 다정다감하고 사려 깊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주었는데 나는 그 동안 최악 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만난 한 동성애자는 얼마나 진짜 사랑이 그리웠는지 미국까지 건너가서 동성애자 교회를 다니며 치료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인 남녀간의 사랑과 결혼 안에서의 섹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어떻게 깨어진 사랑이 치유되고 혼전 성 윤리가 지켜지는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어떤 이유라든 동성애를 정당화해주거나 그들에게 값싼 동정심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속이는 것이며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미국 여인이 기독교잡지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는 한 교회에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생활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가증한 죄”라고 단호하게 선포한 바울도, 곧 이어서 “너희 중에 이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린도전서 6:11)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값싼 동성심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 동성애는 기독교 세계관과 대립되는 것이며 영적 전쟁의 최전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세계관에서 동성애자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특히 동성애가 ‘제3의 성’으로 더 퍼져 나가기 전에 교회와 국가가 나서서 예방해야 합니다.(동성애에 대해 비디오교육을 원하면 [굿모닝 마이 프렌드](낮은울타리)를 빌려 보시고 지도자가 토론회를 인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찾으시는 길 잃은 탕자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들입니다. 누가 이들을 도울 것입니까?